

길림성 공안기관

호적 등록, 수속 창구 교정으로 옮겨 정밀봉사

5월 23일, 장춘시공안국 남관분국 호적행정부문은 동북사범대학에서 '공안 주동적 봉사, 길림성 정착 요청' (公安主动服务、诚邀落户吉林) 교정 진입 활동을 펼쳤다. 활동은 호적 등록 및 수속 창구를 교정으로 옮겨 정확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51명의 호적부본 경찰들을 조직하여 현장에서 집중 강연하고 의문에 대답해주었는데 300여명의 교원과 학생들이 참가, 856부의 선전자료를 발급하고 200여차례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23명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주동적으로 호적 등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12장의 주민 신분증과 거주증을 발급하고 43명이 호적 등록 의사를 밝혀 '무이동' 호적 등록을 실현했다.

로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성공 안청에서 전 성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집중 전개한 '공안 주동적 봉사, 길림성 정착 요청' 교정 진입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전 성 인재 사업추진회가 결속된 후 성공안청

은 본직 임무에 밀착해 정확한 서비스를 둘러싸고 '인재를 남기고 널리 받아들이며 인재를 끌어들이고 사로를 넓혀 인재를 육성하며 홍금을 넓혀 인재를 활용'하는 업무 구상을 깊이 있게 실천, 전 성 공안기관 호적부본과 파출소를 조직해 5월 중하순에 집중적으로 '공안 주동적 봉사, 길림성 정착 요청' 교정 진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된다. 그들은 길림성 66개 대학교 졸업생들이 길림성에 남고 길림성으로 돌아오며 길림성에 와서 호적을 이전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고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고품질 발전을 통해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을 선도하여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일상 학습과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초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성공안청 호적관리총대는 지속적으로 호적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편리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며 호적처리 직통차와 방문수속 서비스 조치를 도입하여 여러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간편하고 량질의 업무처리 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각 지역 공안기관은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미리 관할구역내 각 대학교와 연계해 활동 시간, 장소, 규모를 확정하고 주동적인 방문 서비스 정보를 발표하며 선전 포스터를 붙이고 서비스 내용을 알리며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활동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학교 강당, 교정 광장, 정문 출입구 등에서 정책 선전강연, 현장 홍보자료 배포, 사이트 처리 프로그램 시연, 실시간 의문 해답 등 방식으로 우리 성 인재 호적 등록 정책과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깊이 있게 선전하여 졸업생들의 관심사에 응답했다. 졸업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자 공안기관은 현장에서 호적 등록 의향이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호적 등록 의향서를 쓰게 하고 부동한 호적 유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직접 호적 등록을 진행하여 창구에 가서 수속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호적 등록을 마친 후 공안기관은 증서 송달 서비스 또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시에 활동 현장에 전문 설비를 갖춘 임시 창구를 만들어 수요가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 등록증과 거주증을 발급했다.

한편 학교에 있지 않았거나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호적업무 처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정 진입 활동이 끝난 뒤 각 지역 공안기관은 전 성 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확정해 '명절, 휴일이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인재 '특색'로'를 개설해 진정으로 대학졸업생들이 '길림에서 창업하고 분투하며 호적 봉사를 주변에서 향유받기'를 실현했다. 성공안청은 '작품 강화, 규율 강화, 이미지 제고' 실천활동의 요구에 따라 각지의 교정 진입 활동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하며 활동이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리전기자



23일, 길림성 첫 경범죄사건 '원스톱' 처리중심이 연길시공안국에 정식 설립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박영강,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현, 주당위 정법위원회 상무부서기 오성관, 주사법국 국장 풍건평, 연길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진항발 등 지도자들이 현판식에 참석하였다. 현판식은 오성관이 사회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 형사재판1정 재판장 우봉, 길림성인민검찰원 제1검찰부 주임 장언아, 길림성공안청 법제총대 부총대장 도연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으며 주 및 연길시 정법단위 관련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연길시경범죄사건 '원스톱' 처리중심은 주당위 정법위원회와 여러 상급부문의 정확한 지도와 강력한 지지하에 주중급인민법원, 주인민검찰원, 주공안국, 주사법국이 연합하여 인쇄, 발부한 <경범죄사건 '원스톱' 폐속처리기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원스톱' 처리중심이 사용에 투입되면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정확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이익없이 처벌을 받는 경범죄사건은 '원스톱' 처리중심에서 폐속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법자원 집중, 사

업절차 최적화를 통해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분리, 폐속처리와 완만처리의 분리' 소송개혁 요구를 실현해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를 7개 사업일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사법의 공정과 능력을 모두 고려한 '경범죄사건 폐속심리' 모식은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법률의 공평, 정의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더우기 사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생산, 생활에 다시 투입돼 그들의 시간 원가를 대폭 낮춤으로써 사법의 온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진정으로 '사건종결, 모순해결, 인간화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현판식에서 주법원 당조 성원이며 부원장인 신철주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중심의 정식 운영은 경범죄사건 재판의 새로운 려정과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다음 단계에 주당위 정법위원회 및 상급부문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 주 2급법원은 경범죄 관리사업을 계속해 착실하게 추진하고 과감히 탐색, 실천하며 전 성 경범죄 관리 정품 시범을 힘써 구축하여 전 성 정법체계의 경범죄 관리 현대화에 연변의 지혜를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정현관기자



왕청현공안국, 경제범죄 단속 및 예방 선전일 계열 활동 전개



최근, 왕청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는 경제범죄 단속 및 예방 선전일 계열 활동을 전개, '온라인 + 오프라인'의 여러가지 방식을 리용하여 선전함으로써 현지에서 량호한 시장경제 질서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경찰이 앞장서 널리 선전하기 위한 준비 확실시

왕청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는 삼림공안의 업무핵심간부, 파출소 경찰, 격자경찰 (网格警), 농촌지역의 경찰을 적극 조직하여 경제범죄 선전교육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대중 관련 경제범죄의 선별, 예방,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경제범죄 선전의 중점을 명확히 하는 등 경제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사업을 착실히 수행했다.

삼림경찰과 장기적인 선전사업 체계 세우다

경제범죄수사대대는 주동적으로 수사를 거쳐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직능에 밀착하여 경제범죄를 타격하고 예방하는 선전사업을 전년도 사업

에 일관시켰다. 왕청현의 금융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일선 왕청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는 왕청삼림공안분국, 대흥구삼림공안분국, 천교령삼림공안분국과 연합하여 전 현의 불법모금범죄 예방과 타격사업 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선전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업무 련동체계를 체결하였다.

파출소 경찰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파출소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노크 행동'을 전개하였다. 경찰들은 건물을 기본단위로 하여 예방 지식을 집집마다 선전하여 작은 리익을 탐내지 말고 재물과 개인은행카드 등 정보와 관련된 경우 경솔하게 믿지 말고 루설하지 않으며 계좌를 이체하지 않도록 대중들을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사기 방지 의식과 사기 인식 능력을 끊임없이 높였다. 경찰들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경제범죄 예방에 대한 지식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전했다.

농촌지역 경찰들의 독특한 우세 발휘

대중들과 밀접히 연계하고 현황을 료해하며 수요를 파악하는 농촌지역 경찰들의 세가지 우세를 발휘해 공원, 시장, 학교, 장터, 로인활동장소 등 밀집 장소에 심입해 '현장교실', '류동영화' 상영, '장터 강연' 등 새롭고 즐거운 방식으로 대중과 대면하여 리론과 법치 강의를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법치의식과 안전예방능력을 높였다.

공동으로 경제수사 선전의 새로운 진지 건설

경제범죄수사 선전의 '온라인 + 오프라인' 협력을 한층 더 실현하고 작은 플랫폼이 대민생애 봉사하는 실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왕청현공안국은 위챗 공식계정과 틱톡 등 플랫폼을 리용해 경제범죄를 타격하고 예방하는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발표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학습 경로를 넓히고 경제범죄수사 지식을 료해하게 했다.

동시에 대중 밀집 장소의 LED 전광판을 통해 전형적인 경제범죄사건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 공익광고 선전영화, 포스터 선전표어를 상영하여 범죄사기 수법을 폭로하고 대중들의 예방의식을 제고시켰다.

경찰과 민중이 연합하여 선전 진행

5월 15일, 경제범죄수사대대는 빈하광장에서 '인민과 한마음, 당신을 위해 수호하자'는 경제범죄 단속 및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범죄 단속을 위한 공안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이룩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사회각계각층이 경제범죄 단속 및 예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또 현수막 서명의 특수구역을 증설하여 대중들이 자주적으

로 '경제 발전을 수호하고 수사정신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그리자'는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경찰이 함께 경제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심과 결심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는 보험사기, 불법모금, 돈세탁 방지 등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유형과 경제범죄 상식을 예비하는 선전수첩 5,000여부를 발급하고 연인수로 70여명의 대중 현장 자문을 접수해 좋은 선전 효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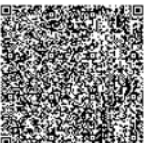
경찰과 기업이 연합하여 일대일 맞춤 선전 진행

기업과 종업원들의 불법모금 예방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범죄수사대대 경찰들은 기업에 심입해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기업 책임자와 종업원들에게 직무행령, 자금류용, 계약사기 등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과 관련된 경제범죄를 중점적으로 해독하고 기업이 시장경쟁 활동에서 관련될 수 있는 범죄행위와 방호 조치, 유지 경로를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기업 책임자 및 직원들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교육 인도하였다.

왕청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는 광범한 대중들이 경제범죄 예방선전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 경찰' 연합, '온라인 + 오프라인' 결합 업무체계를 혁신하고 다차원적이고 립체적인 예방 선전을 전개함으로써 경제범죄 선전이 진정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실제적이고 좋은 효과를 달성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예방하여 왕청현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 오건기자

/ 사진 왕청현공안국



훈춘 경찰, 술 취해 인사불성된 로인 집까지 데려다줘



최근, 훈춘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은 순라 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로인을 발견하고 파출소에 연락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줬다.

사건 발생 당일, 교통순라경찰은 관할구역 순라 시 한 로인이 세기광장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로인의 몸에서는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집주소와 가족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로인은 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고 몸에는 신분증과 같은 유효증건도 없었다. 여러번의 안내성 있는 확인 끝에 경찰은 로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일의 사

태에 대비해 파출소에 연락해 신원을 조회한 뒤 경찰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훈춘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하며 과량 음주로 거리를 쓰러져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중들의 인신안전은 확보하기 위해 술에 취해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제때에 110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리전기자

/ 사진 훈춘시공안국



안도 경찰, 군중 도와 잃어버린 어린이 되찾아줘



최근, 안도현공안국 순찰특수경찰대대는 2명의 아이가 실종됐으니 경찰이 찾아주길 바란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즉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사건 발생 구역으로 출동했다.

로해에 따르면 잃어버린 두 아이는 각각 5살과 6살 난 여자아이로 당일 오후 다른 아이들과 주택단지에서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아이 부모는 신고전화를 걸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잃어버린 두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해 출동한 경찰대원들은 팀을 나누어 한 팀은 사회구역 감시통제실에서 아이의 종적을 찾고 다른 한 팀은 현구역내에서 그 물망식 찾기를 진행했다. 감시가 메라를 통해 경찰은 당일 오후 놀고 있던 몇명의 아이들을 주택단지내의 어른 한명이 데려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단지내의

주택들을 집집마다 방문해 찾았는데 끝내 한 아이의 집에서 두명의 잃어버린 녀자애를 찾았다. 알고 보니 어른은 그중 한 아이의 부모였는데 주택단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가서 놀라고 제의했던 것이다. 두 녀자아이는 이를 자기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잊었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떠나면서 아이 부모는 연신 경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부모에게 "절대 아이가 혼자 뛰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이가 어디에서 놀든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리전기자

/ 사진 안도현공안국

